



최 원 석

- 남대전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3년 재학
- 2018년도 5급 공채 일반행정(전국) 합격

## I. 들어가며

5급 공채를 공부하면서 합격수기를 쓰는 상상을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직접 합격 수기를 쓰고 있으니 감개무량합니다. 공부할 때는 쓰고 싶은 것이 많았는데, 막상 쓰려니 제 수기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네요. 수험생활이 짧은 것도 아니었고, 정말 제가 잘해서 합격하였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제가 했던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나 막 수험생활을 시작하여 막막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작성하겠습니다.

## II. 수험생활

저는 성균관대학교 행정고시반(와룡현)에서 시작하여 와룡현에서 끝을 맺었습니다. 2014년 여름방학에(1학년) 5급 공채를 준비할 결심을 하고 바로 한국사 시험을 공부하여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며, 2학기에는 학업과 1차 공부를 병행하여 11월에 와룡현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후 2015년 7월부터 1순환 강의를 들으며 본격적으로 2차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그 이전에 개인적으로 경제학 예비순환을 들었고, 15년도에 학업을 병행하며 행정법 예비순환을 들은 것으로 기억하지만 별 의미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1년(2015년 7월~ 2016년 6월)은 다른 사람과의 교류를 최소화하여 강사 강의로만

정보를 얻을 수밖에 없어 시행착오가 많았고, 다음 1년(2016년 7월~ 2017년 6월)은 오전 8시부터 밤 12시나 1시까지 공부를 하는 등 매우 열심히 준비하였지만 2차 시험에서 0.4 점 차로 불합격하였습니다. 마지막 1년(2017년 7월~)은 그 전년보다 공부량은 적었지만 멘탈 관리를 위해 많이 노력하였고, 2018년 최종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 1. 공부 및 생활 패턴

저는 1학년 2학기부터 양현관 근처에 있는 하숙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하숙집에서는 오전 7시 반부터 8시 반이 아침 시간입니다(방학은 30분 더 늦습니다.). 저는 대개 7시 반에 아침을 먹고, 8시쯤에 와룡현으로 갑니다. 공부를 마치는 시간은 매 순환 달랐는데, 1순환(7월~12월)에는 11시까지, 2순환(1월~1차시험 전)에는 12시까지, 3, 4순환(1차 시험 후~2차시험 전)에는 12시를 넘어서 공부하였습니다(물론 매년 차이가 조금씩 있었습니다.).

공부는 순환강의를 충실하게 따라갔습니다. 강의를 들으면 반드시 복습했고, 필요하면 예습을 했습니다. 또, 강사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최대한 수용하고, 이를 실천하고자 했습니다. 더불어, 1년차 이후에는 답안 작성에 상당한 시간을 투자하였습니다. 답안 작성을 하면 실제 답안을 작성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정보들을 자연스럽게 깨닫고 익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순환강의 모의고사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전부 풀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하숙집에서 아침과 저녁을 제공하기에 점심은 가볍게 먹었습니다. 일요일에는 (너무 하기 싫어서) 공부를 하는 대신 집에서 쉬거나 여가생활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시험 한 달

쯤 전부터는 자연스럽게 와룡현으로 발이 향했습니다. 운동은 헬스클럽에 다녔으며, 1순환은 1주일에 3번, 2순환은 2번, 3순환은 1번 가량 했습니다. 스트레칭과 유산소 운동을 중심으로 했고, 순수 운동 시간은 40분 정도 했습니다. 다만 3년차(2017년 7월~)에는 1차 시험 준비로 바빠 운동을 성실히 하지 못했는데, 3순환 기간에 체력이 많이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 2. 강의 및 스터디

대부분 와룡현에서 들어주는 강의를 들었습니다. 다행히 메이저 강사를 위주로 들어주기 때문에 수강하는 데 불만이나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다만 와룡현에서 정치학은 김희철 강사 강의를 들어 오는데, 신희섭 강사 강의도 들어보고 싶어 2016년도에 vod스터디를 했습니다. 그때 들었던 것이 이번 18년도 정치학 답안 작성에 꽤 도움이 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순환강의는 3순환은 반드시 들었고, 2순환은 2015년, 16년도에는 행정학도 들었으나 2017년도에는 경제학, 행정법만 들었습니다. 1순환은 선택과목 제외하고 대부분 들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예비순환은 2014년도에 경제학 동영상을 개인적으로 들었고, 2015년도 1학기에 학교에서 들어주는 김기홍 행정법을 들었으나 학업과 병행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 중도 포기했습니다. 2학년 1학기에 선불리 학업과 고시공부를 병행하려 하여 예비순환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1년차에는 PSAT스터디와 행정법 개념 암기 스터디를 했으며, 2년차에는 PSAT스터디와 신희섭 정치학 vod스터디를 했습니다. 그 후에는 전혀 스터디를 하지 않고 개인 공부만 했

습니다. 스터디는 행시를 준비하는 다른 사람들과 교류할 좋은 기회이고, 보다 동기부여가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많이 할애하여야 하고, 사람들을 계속 만나야 하는 스터디 특성상 안 맞는 사람과 같이 하게 되면 아무래도 불편하고, 갈등이 발생하게 되면 개인 공부 시간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향적인 사람들은 어느 정도 내공이 쌓이면 스터디를 하지 않고 순환강의만 따라가도 시험 합격에 지장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외롱현에서 제공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은 합격생분들의 조언과 첨삭을 받을 수 있어 매우 유용합니다. 그러므로 가능하다면 1, 2년차에는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3. 기타

저는 답안 작성은 제트스트림 0.7을 활용하였고, 공부할 때는 1500원짜리 4색 펜(+샤프 기능)을 주로 활용했습니다. 1년차에는 순환강의를 들으며 노트에 열심히 필기도 하였는데, 2, 3년차부터는 필기자료나 교재, 강의자료에만 주로 필기하고 노트는 특별히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 Ⅲ. 제1차시험

저는 201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1차시험은 모두 합격하였습니다. 운도 많이 따랐다고 생각하지만 PSAT 과목을 공부할 때 ‘어떻게 하면 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풀 수 있을지’를 항상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어떤 과목이든 문제를 많이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푼 문제를 분석해서 보다 빨리, 정확하게 푸는 방법을 연구한 후 다른 문제에 적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틀

린 문제는 당연히 분석했고, 맞은 문제 중에서도 시간이 오래 걸렸거나 푸는 데 어려움을 느꼈던 문제도 분석하였습니다. 자주 범하는 실수는 따로 정리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선지 플레이도 활용하고자 했고, 버릴 문제는 과감히 버리는 연습도 했습니다. 1월부터 2월 초까지는 모강 위주로 공부하고, 1차시험 20일 전쯤부터는 기출을 위주로 풀었습니다. 더불어, 저는 전국모의고사는 거의 보지 않았습니다. 문제의 퀄리티가 모강보다 낮다고 생각하여 분석하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전 감각을 익히고 싶다면 몇 번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저는 PSAT 기본강의를 거의 들은 적이 없고, 주로 모의고사 강의를 들었는데, 이는 PSAT 기본강의가 7월에 시작되어 여러모로 저와 타이밍이 안 맞았기 때문입니다. 그제 조금 아쉬운 부분이었으며, 초시생 분들께서는 기본강의를 한 번쯤은 들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1. 헌법

2017년도에 헌법이 처음 들어온 것으로 기억하는데, 김유향 헌법 기본 강의와 심화강의를 듣고 교재에 실린 판례 중심으로 공부해 어렵지 않게(80점) 합격하였습니다. 그러나 2018년도에 헌법이 매우 어렵게 나와 유사하게 공부한 결과 60점을 맞고 겨우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앞으로 1차시험의 준비를 해야 한다면 학교에서 틀어주는 헌법 관련 강의를 대부분 듣고, 헌법 문제를 더 많이 풀어볼 것 같습니다. 특히, 7급뿐 아니라 사법고시나 변호사 시험 기출문제도 풀 것 같습니다.

## 2. 언어논리

저는 언어논리가 가장 자신 있는 과목이었습니다. 게다가 1학년 때 기호논리학을 수강한 것이 논리 문제에서 매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언어는 문제의 유형과 글의 유형을 고려하여 분석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주장문의 경우, 대개 글의 첫 단락은 관심을 유발하는 말인데, 몇 번 분석하여 문제와 연관이 없음을 깨닫게 되면 바로 그 부분을 건너뛰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이나우 언어논리 문제가 좋다고 느껴 강의는 듣지 않았지만, 모의고사를 성실히 풀었습니다.

## 3. 자료해석

제가 계산이 약해서 자료해석은 계산을 최대한 줄이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동시에 계산을 체계적으로 하여 실수를 줄이는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석치수 강사님의 강의는 모의고사 강의를 한 번 정도 들었고, 모의고사와 기본서는 매번 풀었습니다. 그분이 제시한 여러 스킬들(합차, 분수 비교, 특별한 숫자 등)을 활용하려 노력했고, 저와 맞지 않는 스킬은 과감히 버렸습니다. 또, 제 나름의 계산훈련을 하기도 하여 숫자에 친숙해지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언어는 모두 풀 생각으로 공부했지만, 자료해석은 5~10문제 정도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고 생각한 문제는 우선 건너뛰었습니다.

## 4. 상황판단

박준범 강사님의 강의도 한 번 정도 들었고 모의고사는 매번 풀었습니다. 상황판단은 법률문제나 언어논리 형식의 문제(일치부합)는 거의 반드시 풀었으나 퀴즈는 어려울 것 같으면 건너뛰는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경우

의 수 문제는 저와는 너무 안 맞아서 보면 무조건 넘겼습니다.

## IV. 제2차시험

앞서 말씀드렸지만, 2차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답안 작성 연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순환강의 모의고사를 반드시 풀었고, 두 강사가 동시 진행되는 3순환 기간에는 두 강사의 모의고사 답안을 모두 작성했습니다. 물론, 이론이 전혀 안 되어있는 초반에는 답안 작성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만, 예시답안이나 최고답안을 많이 참고하여 어떻게든 답안을 완성하려는 노력 덕분에 실력이 빠르게 늘었던 것 같습니다.

## 1. 경제학

경제고시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경제학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특히 2017년도 시험에 이를 뼈저리게 느꼈는데요, 행정법 60점, 행정학 66점, 정치학 68점, 정보체계론 30점으로 다른 모든 과목에서 고득점을 하였으나 경제학에서 69점을 받아 2차시험 불합격을 하였습니다. 경제학은 처음에는 트리니티를 위주로 공부했고, 그 이후에는 1차시험 전에는 연습책을, 그 이후에는 황종휴 강사님 3순환 자료와 모의고사를 위주로 공부했습니다. 2년차에는 계산문제의 경우 푸는 방법만 알면 실제로 풀어보지 않고 넘긴 경우가 많았는데, 그해 경제학에서 치명적인 계산 실수를 한 이후 계산문제도 끝까지 풀었습니다. 국제경제학의 경우 리카도 모형, 헥셔 올린 정리, 환율 등 국제경제학 특강에서 황종휴 강사님이 강조하신 부분을 답안 작성을 해 보는 등 신경 써서 공부했습니다.

## 2. 행정법

행정법은 1년차에 과락을 맞은 이후 계속 점수가 잘 나온 과목입니다. 행정법은 논점을 잘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의 단어 하나 차이로 논점이 달라질 수 있고, 논점 이탈이 되면 아무리 열심히 써도 점수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논점을 잘 잡기 위해서는 문제를 많이 익히고, 목차만이라도 써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2년차에는 류준세 강사님의 변사기 사례집을 풀고 3년차에는 정선균 강사님의 행정법 사례 연습을 풀었습니다. 김향기 교수님의 사례집은 2년차, 3년차 모두 목차만 잡았습니다.

논점을 잘 잡으면, 그다음에는 논점에 맞는 답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한 강사만의 수업을 끝까지 듣는 것 보다 여러 강사의 수업을 듣는 것도 괜찮습니다. 한 강사의 수업만을 듣게 되면 그 강사가 작성하는 답안만이 정답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다른 강사의 수업을 들으면 반드시 어떤 형식이나 주장을 고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1년차에는 김기홍 강사님을 1순환부터 3순환까지 들어서 원고적격 문제가 나올 때 헌법상 자연권의 권리 인정 여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원고적격 인정 여부 등도 반드시 써야 하는 줄로 알았으나 다음해 류준세 강사님의 수업을 들으면서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결과 암기 부담이 줄어들었고, 강사님들의 의견에 무조건 따르는 대신 보다 전략적으로 답안을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답안 차별화를 위해 판례 정리도 해 보았으나, 실전에서 크게 효과를 실감하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법조문 정리(ex: 행정소송법 제16조 제3자의 소송참가)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 3. 행정학

행정학도 제법 잘 나온 과목입니다. 2년차에는 학자와 관련 개념, 이론, 사례 등을 10페이지 이내로 간략히 정리했고(ex: Niskanen 예산극대화이론, 대전시 무지개 프로젝트), 박경호 교수님이 수업하신 내용을 매일 문제로 만들어보고 이에 대한 답안을 작성하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추상적인 내용이라 여겨지는 것들도 답안에 현출 할 수 있었고, 66점이라는 제법 높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3년차에는 공부방법은 동일했으나 체력적인 한계로 중요한 내용만 문제화 - 답안 작성을 하였습니다(그래서 그런지 점수는 59점으로 떨어졌습니다).

행정학은 박경호 교수님이나 송윤현 강사님도 계속 강조하셨지만,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을 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몇 번씩 읽으며 철저히 제가 아는 것보다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 위주로 답안을 구성하려고 하였습니다.

## 4. 정치학

정치학은 범위가 워낙 방대하므로 개인의 능력과 여건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설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교정치(통치구조, 선거제도, 의회 등)가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 국제정치, 정치경제, 정치사상 등이 비슷 비슷하게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비교정치 내용은 확실히 파악하고자 하였고, 국제정치는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 세 가지 이론을 중심으로 여러 이론을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정치사상도 홉스, 로크 등의 주요 이론을 핵심만 아는 정도에 만족했습니다. 이외에는 모의고사를 작성하면서 보완했습니다.



## 5. 선택과목(정보체계론)

정보체계론은 1년차 때 1순환 강의를 듣고, 이후에는 3순환 강의만을 들었습니다. 2년차에는 모의고사도 성실히 작성하고 제법 많은 시간을 투자했으나 3년차에는 경제학에 보다 비중을 두고 정보체계론은 강의만 듣고 며칠 정도밖에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다행히 22점으로 과락을 면하였습니다. 정보체계론의 기술(AI, 블록체인)이나 정책(국민생각함)은 행정학의 문제 해결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전략적으로 공부하면 차별화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V. 제3차시험(면접시험)

3차시험은 면접시험입니다. 감사하게도 와룡헌에서 면접 준비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어 학원에 가는 등 특별한 노력 없이 면접 준비를 잘 할 수 있었습니다. 면접은 그룹토의, 직무역량면접(PT), 인성면접 세 가지를 보게 됩니다. 그룹토의는 자료를 제공해 주므로 특별한 배경지식 없이도 발표 및 경청훈련이 잘 되어 있으면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직무역량면접은 30분 내에 주어진 자료를 활용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동시에 상황문제(주로 딜레마 문제)를 작성해야 합니다. 쉽지 않지만, 준비기간 동안 꾸준히 연습하면 무리 없이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성면접은 개인의 특정한 경험(갈등 해결 경험 등)이나 지원 동기, 희망 부처 등을 물어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 동기나 희망 부처는 관련 부처 사이트에 들어가서 정책을 알아보는 등 나름의 대비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때 개인의 경험과 연관시키면 좋는데, 공적인 경험(국토대장정, 시 주관 대회 등)이나 봉사활동 경험

이 긍정적인 인상을 주는 데 유리하다고 합니다. 저는 아르바이트도 하지 않았고 학회나 동아리 활동도 제대로 한 적이 없어 고등학교 때 경험을 많이 활용했습니다.

사실, 면접에서 '미흡'을 받아 탈락하는 경우는 극히 예외입니다. 거의 20명 중 1명이 미흡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다수는 '보통'을 받는데, 이때는 2차시험 성적에 따라서 합격 여부가 결정됩니다. 어차피 시험관분들도 고시생들이 경험이 많지 않은 것을 알고 있으므로 3차시험에 대해 너무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 VI. 마치며

사실, 너무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글을 쓴 건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분명히 저와 전혀 다른 스타일로 공부하셔서 합격하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저 이 글을 읽고 조금이나마 공부를 할 의욕이 생긴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 날을 위해 고난의 기간을 견디고 계실 모든 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힘이 되어주신 어머니, 아버지, 고시 준비 기간 계속 돌봐 주시고 격려해 주신 유미경 하숙집 아주머니, 아저씨, 지금은 계시지 않지만 처음 고시반에 왔을 때 잘 적응할 수 있게 도움 주신 원종현 (전)실장님, 기도 많이 해 주신 큰빛교회 목사님과 성도 분들, 그리고 길다면 긴 수험기간 동안 포기하지 않고 합격까지 달려갈 수 있게 도와준 성균관대학교 행정고시반 와룡헌과 실원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그 외에도 감사한 분들이 정말 많지만 직접 연락드리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시 준비 기간 함께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